

동아제약, 강신호 회장 지분 9.95%로 하락

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차남인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가 특별관계인들과 함께 동아제약 지분 10.93%를 확보했다고 분리 보고함에 따라 최대주주인 강신호 회장은 특수관계인과의 지분율이 9.54%(94만1303주)로 종전보다 5.80%p(57만2822주) 낮아졌다고 1월16일 공시했다.

<화학저널 2007/01/17>